

교회소식

1. 오늘은 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경건한 삶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수요일 예배 대신 당분간 목요일 기도회를 오는 20일(목) 오후 7시부터 시작합니다.
4. 야외 예배를 2월 7일(월)에 공동체별로 갖습니다. 장소와 진행은 행사 진행부에서 주관하기 바랍니다.
5. 전교인 사진 촬영이 오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별로 촬영합니다(단장 중인 홈페이지에 수록).
6.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신앙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7. 2022 대심방을 공동체별로 1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말씀묵상(Q.T)으로 성도간의 교제와 신앙성장을 바라는 성도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신청 담당: 김영아 집사).
9.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신년 첫 월례회로 모입니다.
11. 교회의 모든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January

교회사역일지

- 1월 2일(주일) 신년 주일
- 1월 9일(주일) 성찬 주일
- 1월 23일(주일) 제직 주일

기도순서

- 1월 9일 (주일) 박병민 장로
- 1월 12일 (수) 가정 예배
- 1월 16일 (주일) 손조훈 집사
- 1월 19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 예배 안내 김창조, 김명옥
-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민광호
-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신년 주일

24권 1호 2022.01.02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청년찬양예배 2:00 pm
- 유아부 11:30 am
- 아동부 11:30 am
- 청소년부 11:30 am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 담임목사 이태한
- 부목사 이성훈
- 전도사 김양이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에베소서 5:8-9,15-16	인도자
찬송	Hymn	64장	다함께
찬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550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창세기 32:22-32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그 큰일을 행하신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Sermon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360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올해나에게주시는말씀	Verse of the Year		담임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411장 (1,3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금방 끝날 것같이 여기던 코로나 시대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신음 소리들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재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옵소서.

2021년 흉년의 때를 지내면서 배우는 것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사귀기를 하며 동행했었나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분 앞에서 새삼 뒤돌아봅니다. 사역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이란 카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필요에 따라 믿음의 카드로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의 현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현지 교회를 통하여 관계 전도, 대학생 사역, 장학 사역, 생명의 양식 나눔, 그리고 교회 건축 등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 시키시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에 마을 공동 우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됴음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사역입니다:

- 1) 기업에서 여성 생리대 3만 4천 개를 기증받아서 현지 7개 교회 지역 여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 2) 건너 펀디언 중학교 생명의 쌀과 생필품 (학생 100명 가정).
- 3) 교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까울란, 펀디언교회).
- 4) 우물 2개 완공, 소수 부족에게 샘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5) 부활절 전도 집회 (푸꽁교회, 까울란교회, 안푸투언교회, 년록교회, 롱쑤엔교회).
- 6) 장학 사역 (110명, 푸꽁교회, 년록교회, 롱쑤엔교회).
- 7) 구제사역 (육로와 해로로 나누는 것은 쌀, 라면, 간장, 액젓, 기름, 설탕, 미원 등입니다).
- 8) 동탑 대학교 기숙사 사역 (25명, 말씀과 기도, 줌으로), 푸꽁교회 대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와 생활비 지원).
- 9) 푸꽁교회, 안푸투언교회 전도사역 (전도사역 재정협력으로 지역 영혼 구원).
- 10)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 일대일 양육 3명 (성경 8독).

2021년 한 해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사랑의 빛진 자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그린레인 장로교회에 빨리 적응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2.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3. 온전한 예배 장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4.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5.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열방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도록.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나눔란

2021년 12월 2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오직 지혜있는 자 같이> 에베소서 5:15-17

가는 해와 오는 해의 분기점인 요즘은 중요한 때입니다.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이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인지 배워보기 원합니다

1)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기(15):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함 대신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잠 3:5-6).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거짓도 많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노력하기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약 1:15).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자는 마치 음주 운전을 하는 자와 같아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미련한 자입니다(잠 5:3).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2) 세월을 아끼며 살기(16): 세상에서의 시간은 세속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속량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용하여 이 땅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날을 계수하며 살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시 90:12). 연대기적인 시간이며 지나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배정받은 시간이 있지만 아무도 자기가 받은 시간의 양을 알지 못하며 누구나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9:27). 그러므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현대인이 오히려 더 시간의 가난뱅이가 되어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3)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17):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의 선택을 주님께 맞출 때 질서 있고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될 때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는 삶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롬 13:11-12).

새로 맞는 시간들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언젠가 새해를 맞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함에 자세히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